

📖 전례안내

	합동미사	
	3월 10일	3월 17일
해설	송연주	이혜진
독서	유수빈, 유수현	이승엽, 강신정
복사	현중환, 김은혜	정건호, 김대산
선창	성가대	성가대
반주	박승희	박승희
평일미사	805 회	
목주기도	53686 단	

🎵 화답송



내 가 너 를 생각 하지 않 는 다 면 내 혀 가 입 천 장 에 달 라 붙 으 리 라

- 바벨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눈물짓노라.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비파를 걸었노라. ◎
-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올려대는구나.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에게 한 가락 불러 보아라.” ◎
-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낫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굳어 버리리라. ◎
-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

🎵 복음 환호송



말 씬 이 신 그 리 스 도 님 찬 미 받 으 소 서

🏰 본당 소식

1. 본당 대청소 공지 일시: 오늘 주일미사 후 각 구역별
2. 사순 판공성사 공지 일시: 3월 17일 주일미사 전후

3. 견진예비자입문식 (Rite of Enrollment of Confirmation Candidate)

오늘 미사중에 견진예비자들의 “입문식”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 세례의 은총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그리스도와 신앙을 증명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입문 과정을 완전히 하는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예비자들이 (엄지윤 리카르도, 이올 안셀모, 정아인 글라라, 엄성윤 발데르, 신준철 울바노)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무사히 과정을 마치도록 견진예비자들과 가족들, 그들의 대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4. 사순시기 영적생활

우리에게 자선은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내어주신 성체성사를 통한 나눔의 신비를 체험하는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자선의 의미를 생각하면 무언가 거창한 것으로 여기거나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실 자선은 일상 속 작은 행동으로도 실천할 수 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직접 도울 수 있고, 교회가 운영하는 여러 복지시설이나 단체를 후원할 수도 있다.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자선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자선은 세상을 사랑으로 채우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자선은 멀리 있지 않다.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행동으로 표현하자. 사순시기에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행 중 하나인 자선을 실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공동체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1) 사순시기 동안 매 주일마다 옷 한벌씩 기부하기: 입지않고 옷장속에 묵혀둔 옷을 매주 하나씩 기부해 주세요. 이 옷들은 사순시기동안 모아서 홈리스 쉼터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 (2) 집안 곳곳에 숨겨진 동전을 모아 기부하기: 연말 성탄절까지 모아서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5. 여성위원회 봉사활동을 위한 소모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치유와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사랑을 듬뿍 넣어, 하느님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봉사활동 “Prayer Shawl” 모임을 시작하려 합니다. 털실로 뜨개질하여 숄 (shawl), 무릎담요 (blanket), 목도리 등을 만들고, 완성된 것은 신부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후 필요한 분들이나 기관에 전달하게 됩니다. 기도와 정성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함께 구하는 봉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여성위원회 4조 강신정 로즈 (조장) 또는 박승희 글라라 (총무)에게 문의 바랍니다.

6. 성삼일 전례 및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의 봉사자 모집 안내

-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3/28): 해설자 1명, 독서자 2명
 - 수님 수난 성금요일 예식 (3/29): 해설자 1명, 독서자 2명
 - 파스카 성야 미사 (3/30): 해설자 1명, 독서자 3명
 -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3/31): 해설자 1명, 독서자 2명
- 문의: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3월 17일 까지 김병규 토머스 모어

주님 수난 성지 주일부터 한 주간을 ‘성주간’(聖週間)이라고 부른다. 사순 시기의 마지막 주간에 해당한다. 성주간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서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전까지의 사순 시기와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부터 성토요일까지를 포함하는 기간이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소멸시키고 부활로써 생명을 되찾아 주셨음을 기념하는 성주간은 전례주년에서 가장 거룩한 기간이다.

신자들은 성주간 전례에 참여해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의 신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성주간의 구성과 의미를 살펴본다.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구속사업의 거룩한 축제인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해 수난을 당하신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 예식은 신자들이 축복받은 성지(聖枝)를 들고 성당으로 이동하는 행렬과 수난 복음 봉독으로 구성된다.

성지는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상징하는데 성수를 뿌려 성지를 축복한 뒤 예루살렘 입성을 전하는 복음을 낭독한다. 이때 중심이 되는 것은 성지가 아니라 행렬을 통해 드러나는 메시아이자 왕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다. 나뭇가지를 들고 행렬하는 예식은 9세기 무렵 교황청의 로마 예식 안에 들어왔다고 추정되지만 11세기 말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의 「기도문집」에 확실하게 나타난다. 성지에 대한 왜곡된 신심이 존재한 적도 있다. 중세 민중들이 성지에 악령을 몰아내거나 악령의 행위를 막는 힘이 있다고 믿어 중세 말에는 성지 축복 자체를 준성사(準聖事)로 취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1955년 전례 개혁이 이뤄져 성지 축복은 단순화되고 행렬이 다시 성대해졌다.

성지 행렬에 이은 입당 후에는 참회 예절 없이 본기도로 미사를 시작한다. 미사에서는 수난기를 읽으면서 주님의 죽음에 관한 신비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을 맞은 것은 부활로써 구원 신비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묵상한다. 14세기까지는 수난 복음을 부제 한 명이 낭독하는 관례가 지켜졌지만 이후 북유럽 여러 교회에서 세 명의 부제가 역할을 분담하며 연극적 효과를 얻었고 이런 형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육선교위원회

(나해) 사순 제4주일
(2024년 3월 10일)

미사		성직자			교리 및 모임		
평일	목 (19:30)	주임 신부	박재희 요한	216-861-4630	제대회 기도회	10:30	수요일
					교사회 기도회	19:00	수요일
주일	10:00 (합동)				남성 기도회	18:00	화요일
					캐톤 기도회	20:30	수요일
캐톤	19:30 셋째 토요일	종신 부제	신철야 안드레아	cjshinmd@gmail.com Cell: 440-823-3797	에파타 모임	10:30	금요일
					주일학교	11:30	주일

클리블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주보위원	이승엽 유스티노	seungyup.lee.seungyup@gmail.com	216-308-3870
------	----------	---------------------------------	--------------

본당 주소 : 2310 West 14th Street, Cleveland, OH 44113

☎ : 216-861-4630 홈페이지 : www.clekcc.org 이메일: office@clekcc.org